

# “도필과 악필은 백지 한 장 차이”

道筆 惡筆



〈묘법연화경〉 사경 병풍.

## 서예인생 52년 정리하는 ‘남석 이성조 선생’



눈을 감고 붓에 취해 글을 써내려가는 남석 선생.

### 9만9천여 자 ‘묘법연화경’ 서예 인생 대변 쌍관 500여점 · 상형문자 현대화 작품 눈길 “서(書)는 마음의 그림”...10월에 대형 전시회

‘서예인생 52년 제33회 남석 이성조 회전’이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90년대 초 서예계 심사가 작품성 보다는 각종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것에 충격 받은 남석 선생이 20여 년간의 은둔생활을 접고 벌이는 개인전이어서 주목된다. 게다가 그의 서예인생을 총정리 회향하는 만큼 규모 또한 대단하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데모하는 거’라고 할 정도다.

상서에, 상형문자, 사군자, 선사화 등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30대부터 60대까지로 나눠 전시되는 과거 작품을 통해 남석의 걸어진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눈을 감은 채 붓과 하나 되어 임중취호(醉中醉毫), 눈을 감고 붓에 취해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작품도 선보인다. 남석은 이번 전시에서 상형문자를 이용한 현대서에 몇 자를 보여주겠다고 야심을 보인다.

특별전시실에 선보인 <묘법연화경(법화경)> 전 7권 28품 전문을 쓴 168폭 병풍(길이 120미터, 글자 수 총 9만9천384자)은 그의 서예인생을 대표할 대작으로 꼽힌다. 2002년부터 2년간 전지 168장에 50자루의 붓을 버려가며 제작했다. 그의 <반야심경> 1080점, <반야심경> 병풍 108점과 월전 강암 금봉 벽경 등 국내 유명 작가들과의 합작병풍도 전시된다. 또 불망지제현(不忘之譚賢, 불가의 스승인 성철 스님과 서예계의 스승 청남 오재봉 선생 등을 비롯한 모든 스승과 제자들에게 헌정하는 쌍관 작품 500여점도 눈길을 끈다.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이름이 동시에 새겨지는 쌍관 작품은 그의 의미만으로도 각별한 가치를 지니는데, 남석은 남나보소, 귀천과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그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주었다. 500여점의 쌍관 작품에서는 대상에 따라 한글, 한문, 추

“어떤 이들은 간혹 ‘눈을 감고 휘갈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온 몸과 마음이 하나로 붓끝에 몰입돼 한 획마다 힘이 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져요. 내 모든 것이 부드러운 붓털 끝에 집중돼 종이에 옮기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모든 흐름이 가서 글자가 이뤄지는 것이지요.” 남석의 표현에 짜릿한 전율이 흐른다. 한 자리에 앉았으나 감히 넘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에 몰입한 모습이다.

말로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급기야는 직접 시범을 보인다. 남석이 그런 서도는 어느덧 둥근 원상을 만들며 원점에 와 있다. “도필은 악필과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도필은 글을 잘 써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원호 의상 두보 등 고승들과 성현들이 남긴 필적을 흔히 도필이라 하는데 이들은 알고 보면 글씨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깨

달음 속에서 바로 도필이 된 거지요. 해인사 입구에 가보면 성철 스님이 내 붓 빌려다가 신훈 놓고 쓴 걸 오려 뜯어 새긴 글씨가 있어요. 글씨체는 안 이쁘데 그게 바로 도필이예요. 글씨 안 배우고 도인이 되면 그게 바로 도필인데 난 도인이 될 수도 수련도 부족해 도필을 쓸 수 없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죽을때까지 수행을 계속 해야지요.” 한평생 글을 써 온 노 서예가가 던지는 꾸밈없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다. 설블리 들어 넘길 놋두리가 아닌데 이를 어찌 주위 담을까? 망설임 틈 없이 점을 찍고 이어가는 그의 화법이 거침없다. “서예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과 수행을 통해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書)는 마음의 그림이며 인격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상이 있듯이 서에도 서상이 있어 글씨만으로 글을 쓴 이의 성품과 외향 등을 알 수 있다”는 남석 선생은 “많이 추구해 알면 알수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맛은 알지혜, 覺慧에서 온다는 남석 선생은 이번 고회전을 끝으로 이전 대이상 전시회를 갖지 않을 작정이다. 몇해 전 <묘법연화경> 전품을 쓰는 것으로 이생에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긴다. 마지막 한가지 더 발원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사서공양을 하는 것이다. 대구=배지선 객원기자

#### 남석 이성조 선생은?

1939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철없던 고교시절 교내외를 주름잡던 문제아였다. 그러나 1952년 4월 교내 특별활동시간 서예부 교실을 기웃거리다가 후배의 붓을 가로채 글자(永)를 갈겨 쓴 것이 그의 인생에 큰 점이 됐다. 이후 스승 청남 오재봉이 그를 서예의 길로 인도했다. 제 7회 전주 개천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서예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부산사범대 미술과를 졸업했다. 1959년 제 8회 국전에서 최연소로 입선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로 선정됐으며, 대구시문화상을 수상하고, 대구시서예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1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초대전시회에 초청되기도 했다. 남석 선생은 젊은 시절 한때 성철스님 문하에 들어가 8개월간 출가수행자의 품도 키워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14

### 하나된 음성으로 울려 퍼지길

#### 현대 불교음악 결산

앞으로 불교음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문제들을 불교음악인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활동무대 마련을 통하여 지도자 양성과 저변 확대이다. 일반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불교와 불교음악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불교문화에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지식 교육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교음악의 사상을 가르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불교음악의 교재 보급을 통한 창작자들의 보호다. 작품 보호와 연구 지원을 통한 새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고, 단일 교재로 교육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음성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재 이익금은 한국불교음악역사관 건립과 운영은 물론이고 역사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돼야 한다.

셋째는 불교음악 교육기관 설립이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사)삼보불교음악사학회 건립으로 불교음악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까지 교육 할

### 불교 소양 갖춘 지도자 양성 통한 저변 확대 불교음악 교육기관 설립 및 연구 후원 등 절실

는 문제가 많다. 사찰에서 지도자를 영입하는 것은 음악을 전공한 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교적 소양도 알 수가 없게 됐다. 불교음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당한 대우를 하는 토대가 필요하다.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다보니 한 지도자가 여러 합창단을 지도함으로써 지도자가 연구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각 사찰에서 같은 날 행사가 있을 때에는 행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이제는 사찰에서도 지도자를 직업인으로 인정해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지도자는 불음포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불음포교사로서의 의무와

수 있는 전국적인 기관을 하루 빨리 건립하는데 있다.

한국불교음악역사관에서는 지도자의 평생교육은 물론이고 합창단 임원들과 합창단원들에게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는 연구 활동과 창작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는 활동 무대 설립과 기획 활동 설 외역력의 향상에 있다. 불교 음악계에는 제대로 갖추어진 연습장소, 공연할 수 있는 무대, 세미나 및 회의장소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관을 하려해도 기획, 정보, 유관기관 협력 부족 등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밝은 불교음악의 길이 열리라 생각한다.(끝)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영 17

#### 무이산 문수암

장인성 시인

초승달 실눈 뜨는 초사흘밤에  
엇된 비구니 갯짐을 물고  
알찌한 바닷물에 몸을 적실 때  
파도가 철쭉철쭉 뱃속에 들어  
비달 하나씩을 뜬게 해서요  
비구니가 풀어놓은 동그란 알이  
여기저기 섬으로 떠다니지요.



문수암(文殊庵)-경남 고성(高城)의 다도해를 품어 안고 있는 비구니 암자  
그림: 이상배 화백



##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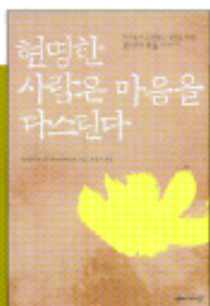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 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쉽게 풀어낸 이야기 천자문!!

천명일 지음 | 536쪽 | 값18,000원 | 고급양장 값25,000원



### 산성 할아버지의

# 이야기천자문



붓대의 마음 다스리기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당신은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없으십니까?  
천자들의 원인과 일화를 통한 붓대의 마음다스리기!  
담다니다 지음 | 홍종욱 옮김 | 값8,900원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원문 천수경을 해설한 책!  
결 심배, 원이삼경, 사상이수권년, 유훈문 등  
원문을 부처님의 지견에 맞추어 깊이있게 설명한다.  
천명일 편저 | 값10,000원